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윤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밴쿠버에 위치해있으며 홈스테이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규모는 우리 대학교보다는 작았지만 있을 건 다 갖추고 있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교가 방학 시즌이라 좀 조용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영어회화 수업과 비슷했다. 선생님들마다 수업 방법이 다른 것 같았고, 테스트를 보고 반을 나누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영어로만 말하는 것이 규칙이었고, 과제는 저널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 써오는 것이었고, 우리 반은 아침마다 3분씩 영어로 전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는 것이 과제라면 과제였다. 프레젠테이션을 2번 정도 하였는데 발표 준비를 해오는 것도 과제였고, 우리 반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어로 말을 잘 할 수 있게 자신감을 많이 주셨다. 수업 준비는 딱히 해갈 필요는 없고, 그날 그날 성실히 수업에 임하면 될 것 같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밴쿠버 곳곳 돌아다니기, 카약, 아쿠아리움, 밴쿠버 박물관, 휘슬러 트립 등의 액티비티를 했고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었다. 준비물은 카약킹과 휘슬러 트립을 할때만 필요하고 다른 활동들은 필요가 없었다. 디스커버리 밴쿠버와 밴쿠버 박물관은 다녀온 후 프레젠테이션 활동을 또 한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현지 기후는 초가을 날씨정도로 한국의 여름과 비교하면 다소 쌀쌀한 편이다. 하지만 햇볕이 많이 강해서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필수이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딱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없었으며 다운타운 쪽을 나가게 되면 홈리스들이 많으니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의 집은 전반적으로 조용했고 내 방이 넓고 책상도 다 구비되어 있어서 좋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홈스테이 가족들과 바로바로 연락하면 된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점심은 홈스테이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였고, 저녁은 주로 외부 식당에서 친구들과 사먹었다. 가끔 저녁을 집에서 먹기도 하였는데 다행히 내 입맛에 캐나다 음식이 잘 맞아서 맛있게 먹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우리 집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하긴 했지만 20분이면 학교에 도착했다. 시내 등을 나갈 때는 버스와 스카이트레인 둘 다 이용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노선이 복잡하지 않아서 한번만 정확히 익히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식비 등	45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햇볕이 많이 세서 선크림과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선글라스를 챙기지 못했는데 후회를 했고, 옷도 대부분 여름옷을 챙겨갔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서 가디건이나 후드집업같은 옷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러가는 거긴 하지만 문화체험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꼭 들려야할 장소 등을 미리 알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만큼 진짜 유익하고 재밌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영어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영어를 말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해외에 살면서 영어를 사용하면 영어가 느는 건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영어로 대화하다보니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영어를 쓰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단어를 몰라 말이 안 나올 때 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단어를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다시 가고싶을 만큼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토익같은 문법 공부뿐만 아니라 미드 등을 보면서 회화 실력을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휘슬러마운틴에서 랑가라컬리지 모두와 함께



휘슬러 곤돌라에서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 탄 날



페리를 타고 간 빅토리아 아일랜드



캐나다에 처음 도착한 날, 랑가라컬리지 앞에서



카약킹 풍경